

# “전북대, 혁신 통해 지역발전 선도”

### 양오봉 총장, JB미래포럼서 대학의 현재·미래 비전 제시... 대학-산업도시 트라이앵글 구축 등 강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지난 24일 오후 정읍 전북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JB미래포럼에서 전북 출신 중소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전북대의 역할과 혁신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지난 24일 오후 정읍 전북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JB미래포럼에서 전북 출신 중소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전북대의 역할과 혁신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특강에서 양 총장은 지역과 지역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 지역상생 우수 모델로 손꼽히는 해외대학 사례를 들며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전북대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와 재료과학과 농학·임학, 화학공학 등 선도형 5개와 물리·천문학, 생명과학, 전기·전자공학 등 도약형 5개 등 10개 학문 분야의 세계 100위권 진입, 전북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 구축을 통해 새만금-군산에는 이차전지와 K-방산, 그리고 반도체 분야를, 전주와 완주에는 농생명과학과 그린수소 산업을, 익산-정읍에는 팻바이오와 동물의약품 산업을 각각 육성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화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지역상생의 전경으로 자리매김한 위스콘신대학교와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파크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룬 노스캐롤라이나주, 과감한 혁신으로 세계혁신평가에서 세계 2위에 오른 애리조나주립대, 창업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핀란드 알토대,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공조로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한 호주 로열 멜버른공과대학 등의 사례를 들며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플래그십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북대의 혁신을 강조했다.

양 총장은 “전북대는 지난해 글로벌 대학30 사업에 선정돼 전북과 지역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우수 유학생 유치로 지역생활 및 정주 인구를 늘리고, 지역 산업 발

전을 견인하며, 지역 재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플래그십대학으로 나가기 위한 전북대의 담대한 변화와 혁신은 지역발전을 가장 앞장서 이끌겠다는 의지”라며 “전북대가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플래그십대학으로 더 큰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후배들 천원의 아침밥 후원”

### 전북대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대회 앞서 대학발전기금 4400만원 모금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천원의 아침밥’ 후원을 위한 2024년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병성(농생물86) 농생대 동문회장과, 진의현(건축공학94) 총동창회 부회장이 각각 2,500만원과 1,4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25일 전주상그릴라CC에서 열린 대회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박종안 전북은행 수석부행장, 김영 변호사, 김동근 교수회장 등 33개 팀 132명의 동문이 참가했다.

양오봉 총장은 “총동창회와 동문들의 따뜻한 관심이 대학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언제 어디서든 지랑스러운 모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북대가 학생 복지 실현을 위해 운영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총동창회와 동문들이 힘을 보태고자 추진됐다.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이번 골프대회가 재학생들의 천원의 아침밥 후원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후배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수소분야 글로벌대학 국제적 위상 높인다

### 중 국가수소연료전지 표준위원회 등과 협약

우석대학교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이 최근 중국 과학부 초청을 받아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국가수소연료전지 표준위원회 및 중국 Z-Park 수소연료전지 얼라이언스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석대학교 이흥기 산학협력부총장(사진 가운데)이 최근 중국 과학부 초청을 받아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국가수소연료전지 표준위원회 및 중국 Z-Park 수소연료전지 얼라이언스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수소분야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양국 간 수소산업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 진행, 수소산업 국제표준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담고 있다.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내 수소 관련 대표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수소분야 글로벌

컬대학을 지향하는 우석대학교는 앞으로 수소분야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김영근 선임 전국공노조 전북교육청지부장 당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 제6기 지부장에 김영근 前 사무국장(사진)이 당선됐다. 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2~24일 치러진 전국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지부장, 사무국장 선거에 단독(러닝메이트)으로 출마해 투표자 중 98.04%의 찬성을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김영근 당선인은 제6기 지부장에 출마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과 감질, 인권침해 대응 △삼위위급 확대, 인사제도개선 △교육과 행정 공공성 강화 △조합원 복직제도 강화 △노동조합 통합 등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지수가 연이어 4등급으로 추락한 것에 대해 교육청의 각종 사업에 따른 일선 현장의 부담감이 높고, 또 내·외부의 청탁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공공성 훼손이라며, 일반직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구성

### 서거석 교육감 주재... 총 51명 첫 회의 열고 추진계획 보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정책 제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5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은 교육청 전체의 청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 주재 협의체다. 부교육감과 국장, 감사관, 부서장,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총 51

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은 △연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협의 및 정책 제안 △반부패 현안에 대한 대책 논의 △청렴정책 추진 상황 점검 등이다.

이날 회의는 2024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보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위한 정책 제안 및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이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청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창업아이디어 캠프

전주비전대학교 예코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김영주)은 지난 24~25일 1박 2일 일정으로 소노벨 변산리조트에서 원광보건대학교 바이오엘스 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주운주)와 창업아이디어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전환시대 새로 등장한 법적 이슈 관점 정리

### 전북대 가상재해법센터, 인하대 AI·데이터법센터와 학술대회

전북대학교 가상재해법센터(센터장 송문호)는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센터장 김원오)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전환시대, 가상공간 규범과 법제도”를 주제로 지난 24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디지털전환시대를 맞아 새롭게 등장한 법적 이슈에 관한 관점 정리와 새로운 규범 정립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심), 실무자간 토론의 현황과 법적 쟁점, 가상자산에 대한 이원적 규제 체계와 금융 소비자 보호의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학술대회에서는 양 기관이 디지털전환시대의 신 질서 정립을 위한 입법동향 및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법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무역기술장벽법정, 합리적인 사이버보안 기준에 대한 연구(미국 주법 중심), 메타버스 지식재산 생성과 보호에 관한 연구, 디지털 화폐의 사법상 권리와 이전(일본 현황

이날 송문호·김원오 센터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토대로 양 기관이 더욱 활발히 교류하고 지식 공유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대만,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아우르는 ‘가상재해법, 인공지능법 아시안연구벨트를 조성’하는 비전을 공유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선정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전국의 문화시설에서 읽기, 쓰기, 탐방, 낭독,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문학·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으로 9월~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문화예술의 중심 전북 그리고 Korea-culture’라는 주제로 인문 강연과 탐방이 결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올 상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착수

### 전북자치도교육청, 6월 1~10일 진행... 6개 안건 다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월 1~10일 10일간 청주나래(별관) 3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6건이다.

시민감사관은 전북교육청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조사 및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감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변호사·대학교수·전직의원 등 10명의 외부 전문가가 감사 대상 안건별로 1~2명씩 참여한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 연 2회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한편 감사 종료 후에는 교육감에게 시민감사관회의회 명의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 교육감은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해 그 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올 상반기 감사 대상 안건은 △스마트기기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위생(WEE)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학교상담활동 내실화에 관한 사항 △다문화

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행정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면서 “참여형 청렴정책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기전대,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27일 채플관 플립러닝실에서 2024학년도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서식에서는 예비치과위생사 대표 이주원 의 21명의 선서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예비치과위생사로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명예와 존엄성을 유지할 것을 훗날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한편 이어진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총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이번 장학금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과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